

## ■ 한강의 발원지 ■

### 1. 한강의 시작과 끝

#### 1) 한강의 시작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儉龍沼)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골에 있다. 금대봉 기슭의 제당곰샘과 고목나무샘 물구녕의 석간수와 예터굴의 굴물에서 솟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검룡소에서 다시 솟아나와 514km의 한강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원래는 강원 평창군 오대산의 산샘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로 꼽혔다.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꼭 집어내는 문헌상의 기록은 없지만 예로부터 유명한 샘이었고, 세종실록지리지 등 거의 모든 지리지에 명시돼 있는데 물맛이 매우 좋고 다른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맑은 빛을 간직한 채 서울까지 흐른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의 양반들은 강가에서 뜬 물을 먹지 않고 배를 타고 강 한 가운데로 나가 길어 온 우통수의 맑은 물을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이로써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여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정확한 지도가 근거가 됐다. 지도상의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검룡소의 물줄기가 약 32km 더 길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1987년 국립지리원이 한강의 발원지로 공식 인정했다..



## 검룡소 (儉龍沼)

이곳은 한강 514.4km의 발원지로 (국립지리원공인) 하루 2,000여톤 가량의 지하수가 석회암반을 뚫고 올라와 깊이 1~1.5m, 넓이 1~2m의 파인 암반 20여 m를 지나며 이루어내는 광경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수온은 사계절 9℃ 정도이며 암반 주변 푸른 물이끼는 신비함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와 이 소(沼)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 친 흔적이 지금의 폭포이며, 인근에서 풀을 뜯다가 물먹으러 오는 소를 잡아 먹기도 해 동네사람들이 매워 버렸다고 전해진다.

1986년 태백문화원에서 매워진 연못을 준설 원형을 복원하였고, 1989년 태백시에서 육각정을 세우고 주위를 정비 하였다.





## 2) 한강의 끝

한강의 끝'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이며, 이곳에서 한강은 북쪽에서 흘러 내려온 임진강과 합류한다. 이곳 시암리의 한강-임진강 합류지점부터 서해바다와 만나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 인근까지는 할아버지의 강, 조상의 강이란 의미로 조강(祖江)이라 부른다. 그러나 분단 이후부터 조강이란 지명은 점차로 사라지고 현재는 통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 인근을 한강의 하구로 보고 있다.

## 2. 한강의 유역현황

### 1) 남한강유역

한강의 본류인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용소에서 발원한 하천으로서 삼척시 하장면 부근에서 골지천의 이름으로 북류하다가 광동댐을 지나 석병산(1,010m)에서 발원한 임계천과 합류해 서류,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서 황병산(1,407m)을 발원지로 한 송천과 만나 조양강이 되어 흐르다가, 오대천과 합류한 후 남류하여 동강이 된다. 동강은 영월읍에서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해 만들어진 서강과 만난 후 흐르다가 충주시에서 달천,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여주군 부근에서 섬강·청미천과 만난 후 양화천·북하천·흑천 등의 지류를 합친 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난다

### 2) 북한강유역

총연장 317km, 유역면적 10,834km<sup>2</sup>의 하천으로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이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에서 금성천을 합친 후 북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화천군을 거쳐 남류하다가 소양강과 춘천에서 만난다. 소양강은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원한 인제천이

인북천이라는 이름으로 남류하다가 설악산에서 발원한 북천과 인제읍에서 합쳐진 후 홍천군 내면에서 발원한 내린천과 합류되어 춘천으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이후 북한강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홍천군 서석면에서 발원한 홍천강과 합류한 뒤 서류하다가 외서면 청평리에서 조종천을 합친 후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해 한강을 이룬다.

북한강의 풍부한 유량은 댐 건설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소양강 다목적댐을 비롯해 화천·춘천·의암·청평댐이 건설되었다. 북한강 유역 내 가장 큰 거점도시인 춘천은 원래 북한강 가항종점에 있어서 조선초기에는 소양강창을 두고 북한강 유역의 세곡을 수집·운반하고 물자 집산지를 이루었으나 일제 말 청평댐 건설로 배의 운항은 막혔다.

### 3) 팔당 하류역

팔당 하류역이란 양수리에서부터 한강이 임진강과 합류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위로부터 왕숙천·성내천·중랑천·탄천·홍제천·안양천·곡릉천 등 많은 하천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하남시·구리시와 서울특별시·경기도 고양시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팔당 하류의 한강에는 한강 상류로부터 운반된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양수리 하중도, 당정·미사 하중도, 토평·석도 하중도, 잠실 하중도, 뚝섬, 신사·반포 하중도, 여의도, 난지도, 능곡 하중도, 신평·노고 하중도 등의 많은 하중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중도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로가 변경되어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화(陸化)되거나 골재 채취로 인해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다

### 4) 임진강 하류역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장 254.6km, 유역면적 8,117km<sup>2</sup>인 임진강은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연천군에서 한탄강과 합류해 흘러내려 오다가 신천·문산천

과 개성시를 관류하는 설계천을 합류해 큰 강이 되어 김포반도의 북안에서 한강 하류로 유입한다.

한강 연안에 펼쳐진 넓은 들은 하구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그 서쪽에 김포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을 흘러 서해안으로 들어가는 예성강과 임진강의 언저리에는 경기평야가 펼쳐져 있다. 김포군·개풍군·장단군과 파주시·고양시·개성시가 이에 속하나 개성시와 개풍군·장단군의 대부분은 휴전선 이북에 속한다. 이 지역은 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의 지역이고 수상교통이 편리하여 각종 산업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으나 휴전선 관계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강 이북의 고양시와 파주시, 그리고 휴전선에 접해 있는 강화군과 김포군의 일부는 과거 농업활동 외에는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파주시와 문산읍의 경우 최근 자유로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통일동산과 임진각, 그리고 군내의 여러 사적지로의 교통연계가 쉬워져 주말 관광지역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 지역의 주산물인 쌀은 예로부터 교하미라 하여 여주·이천미에 견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

한편 영종도 신공항이 새로 들어선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인근 강화나 김포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국제적 관광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채소·양계·낙농 등의 근교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김포평야에서는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다. 강화와 김포에서는 인삼 재배가 유명하다.

### 3. 한강의 지천

#### 1) 남한강유역의 지천

동강	동강은 한강 본류의 최상류 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위치한 금대봉에서 발원해 영월읍으로 흘러나가는 총연장 148.7km, 유역면적 2,335km <sup>2</sup> 의 하천이다
서강	서강은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 이루어진 하천이다
섬강	섬강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태기산(1,261m)에서 발원해 계천이라는 이름으로 남서로 흐르다 횡성읍을 통과해 남류, 원주시에서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원한 원주천과 합친 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서 발원한 삼산천을 만나 남한강으로 들어가는 연장 92.6km, 유역면적 1,485km <sup>2</sup> 의 하천이다
북하천	북하천은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에서 발원하여 마장면과 호법면을 관류하여 구만리 벌판을 돌아 이천시 백사면과 부발읍의 지계를 이루며 여주군 흥천면을 지나 남한강에 합류되는 이천의 젓줄이다. 연장 37.3km, 유역면적 288km <sup>2</sup> 로 옛날에는 남천이라고도 불리었다.
양화천	양화천은 이천시 설성면에서 발원한 송곡천이 역시 같은 산간 부락인 설성산의 장천리에서 발원한 대신천과 만나 북쪽으로 이천시 대월면과 가남면을 지나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는 연장 32km의 하천이다
청미천	이천시의 동남단을 흐르며 충청북도와의 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미천은 그 근원이 용인시 원삼면 으로 연장 66.1km 유역면적 615km <sup>2</sup> 이다. 청미천은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경안천	경기도 용인시 호동에 있는 문수봉(404m)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용인읍을 지나 북류하다가 광주군 모현면에서 능원천과 합류한 후 초월면에서 곤지암천을 합친 다음 팔당호로 들어가는 길이 49.5km 유역면적 598km <sup>2</sup> 의 하천이다.

## 2) 북한강유역의 지천

인제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원해 흐르다 해안면에서 발원한 성황천을 만난 후 사행을 하면서 계속 남류, 인제읍 원통리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안산(1,430m)에서 발원한 한계천을 합친 후 합강리에서 내린천과 만난 뒤 소양강이 되는 유로연장 55.7km의 하천이다
소양강	길이 169.75km의 하천으로 북한강 제1의 지류이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 만월봉(1,281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며 계방천이라 불리다가 자운천·방대천 등을 합류하고 내린천이 된 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서 인북천과 합류, 소양호를 거쳐 춘천시 우두동에서 북한강으로 유입된다.
내린천	오대산(1,563m)에서 발원한 계방천과 계방산(1,577m)에서 발원한 자운천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서 합쳐 이루어진 내린천은 상남면을 지나 기린면 현리에서 방대천과 합친 후 인제읍 북단의 합강리에서 소양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길이 17.2km의 하천을 말한다
조종천	연장 39km의 하천으로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서 발원한다.

### 3) 팔당 하류역의 지천

왕숙천	왕숙천은 총연장 37km 유역면적 279.7km <sup>2</sup> 로서 포천군 소흘읍에서 발원해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장현리·내각리·내곡리를 지나 구리시를 관통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 하천은 태조 이성계가 상왕으로 있을 때 팔야리에서 8일간 유숙하고 또 내각리에서 별궁을 짓고 있었다고 하여 왕숙천(王宿川)이라 하였다
중랑천	양주군 주내면 불국산(470m)에서 발원해 남류하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용암산(476m)에서 발원한 부용천과 합류한 뒤 서원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류하다가 도봉산(716m)과 수락산(637m)의 한 가운데를 흐르며 서울시 관내로 진입해 중랑구에서 북한산(836m)에서 발원한 우이천과 합류한 후 성동구에서 청계천과 합류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총연장 29km, 유역면적 288km <sup>2</sup> 의 하천이다.
성내천	성내천은 남한산으로부터 발원,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을 흐르며 올림픽공원을 끼고 북서로 흘러 성내동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9.77km의 하천이다
탄천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수지읍을 거쳐 북류하다가 광주군 서부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를 거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과 강남구 대치동을 지나 삼성동 부근에서 양재천과 합천 후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이 37km의 하천이다
홍제천	홍제천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남쪽에 위치한 종로구 구기동에서 발원, 남서류하다가 서대문구 홍제동·남가좌동을 지나 마포구 성산동에서 불광천과 합천 후 성산대교 부근에서 한강과 합쳐지는 길이 12.3km의 하천이다.
안양천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와 서울시 남서부 일대를 북류하는 하천으로 길이 32.2km 유역면적 286km <sup>2</sup> 이다. 의왕시 동부에 솟은 백운산(561m)의 남서계곡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관통한 후 학의천·석수천·수암천과 합류하면서 안양시를 관류한다. 하류 부근에서 목감천과 마장천을 합친 뒤 계속 북류하여 서울시 강 서구와 영등포구 사이에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곡릉천	경기도 양주군과 고양시·파주시를 서류하며 한강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가둔천이라고도 하며 길이 51.6km 유역면적 253km <sup>2</sup> 이다.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첼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고양시 선유동과 파주시 조리면 금촌동 일대를 지나 파주시 교하면 오도리 북쪽에서 한강 하류를 향해 서쪽으로 흐른다



#### 4) 임진강 하류역의 지천

한탄강	한탄강은 임진강 상류로서 강원도를 원류로 하여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에서 본 줄기를 이루고 화적연 물과 합류하여 영북면을 거쳐 이동면 백운산에서 비롯한 물줄기가 영평천과 만나 임진강에 합쳐들기까지 그 길이가 130km나 되는 강이다
영평천	영평천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백운산에서 근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영중면 풍혈산 북쪽 기슭을 지나 성동리에 이르러 포천천과 합류하여 한탄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포천천	경기도 포천군의 최남단인 소흘읍 축석령에서 근원하여 북으로 흐르다가 가산면에서 흐르는 여러 내를 흡수하여 포천읍 신읍리에 이르러 군내면 수원산에서 서류하는 물과 다시 합류하여 신북면 만세교에서 화현면 운악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는 육송정천을 받아들인 후 영중면 영평천으로 들어간다.
신천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은봉산(379m)에서 발원해 흐르다 양주군 은현면에서 상패천이라는 이름이 되어 동두천시를 관통해 국도 3호선을 따라 북류하다가 연천군 청산면에서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 ■ 문학속의 한강 ■

### 1) 옛 시 속의 한강

#### ▪ 목 차

1. 廣津村 墅(서) 晚眺詩 - 徐 居 正
2. 漢 浦 弄 月(한강에서 달구경을 하면서) - 李 穡
3. 漢 江 舟 中(한강에서 배 띄우다) - 李 鶴 儀
4. 舟 中 楮 子 島(배로 저자도를 지나며) - 鄭 業
5. 黔 丹 寺 雪 景(검단사의 눈경치) - 鄭 業
6. 還 菴 川 居(소내에 돌아와 살면서) - 鄭 若 鏞
7. 三 田 渡 - 徐 居 正
8. 東 湖 舟 中(동호의 배 안에서) - 鄭 錫 慶
9. 狎 鷗 亭 - 安 止
10. 銅 雀 渡(동작나루를 건느며) - 鄭 若 鏞
11. 麻 浦 泛 船 - 月 山 大 君
12. 垂 釣 - 成 聃 壽
13. 龍 山 - 李 穡
14. 栗 島 - 李 敏 求
15. 漢 江 途 中(한강으로 가는 길에서) - 韓 景 琦
16. 遊 漢 江(한강으로 가는 길에서) - 徐 居 正
17. 舟 下 楊 花 渡(배로 양화도로 내려오며) - 申 用 漑
18. 舟 橋 行 - 鄭 若 鏞
19. 東 湖 郎 事 - 白 光 勳
20. 狎 鷗 亭
21. 楮 子 島 - 姜 碩 期
22. 過 舟 橋 - 鄭 若 鏞
23. 濟 川 亭 翫 月 - 李 承 召
24. 楊 花 渡 - 成 任
25. 無 題 - 金 尙 憲

26. 세고탄(洗姑灘) 새색시 노래 - 徐居正

1. 廣津村(광진촌) 墅(서) 晚眺(만조) 詩(시)

徐居正(서거정)

乾坤(건곤)이 갈리면서 한 江湖(강호)를 이루이지니  
千里(천리)나 넓은 곳이 한 폭의 水墨畫(수묵화)로다  
해오래기 나는 곳에 물이 밝았다 어두웠다  
푸른 하늘 저 끝엔 山(산)이 보이다 말다 한다  
원단의 松菊(송국) 사이로 옛 길이 남아 있는데  
몽촌의 상麻(마)는 한마을이 풍성하다  
걸어가며 보노라니 해가 기우는데  
개인 날의 꽃기운이 젖처럼 운택하구나

2. 漢浦弄月 (한포농월 :한강에서 달구경을 하면서)

李穡(이색)

해가 지닌 모래는 더욱 하얗고  
구름이 걷히니 물은 한결 맑아라  
시인은 이밤에 달과 노나니

피리소리 없음이 흥이로구나

### 3. 漢江舟中 (한강주중 :한강에서 배 띄우다)

李鶴儀 (이학의)

온집에 맑은 해가 양주에서 나오고

한강에 바람없어 작은 배를 띄우네

비스듬한 언덕을 따르려하니 돛대 끝이 움직이고

푸른 하늘은 해협을 향해 흐르는 듯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여울의 물결을 묻지 않으나

늦은 계획이니 도리어 물가의 갈매기만 바라보네

나그네 길에 유독 아름다운 여인이 많으니

강남 천리길에 암연히 슬퍼하네

### 4. 舟中楮子島 (주중저자도 :배로 저자도를 지나며)

鄭 業(정업)

외로운 저녁 연기 옛 나무에 비졌고

겨울 해는 어느덧 먼 산에 내린다

해 저물어 거룻배로 돌아오나니

저 길은 아득히 놀 속에 있다

## 5. 黔丹寺雪景 (검단사설경 :검단사의 눈경치)

鄭景(정업)

산길에 사람없고 객도 날지 않고

외로운 마을 어둑한데 차가운 구름 쌓였다

절의 종은 유리 세계를 밟고 나가서

강 얼음을 때려 깨고 물 길어 돌아온다

## 6. 還菴川居 (환초천거 :소내에 돌아와 살면서)

鄭若鏞(정약용)

흠쩍 고향마을 돌아와 보니

문앞에 봄강물 즐겁히 흐르누나

흔연히 약수터 언덕에 나서 보니

고깃배는 옛처럼 오락가락

흠쩍 고향마을 돌아와 보니

문앞에 봄강물 즐겁히 흐르누나

흔연히 약수터 언덕에 나서 보니

고깃배는 옛처럼 오락가락

꽃은 따사롭고 수풀속 정자는 고요한데

소나무 드리워진 들길은 그윽하구나

남쪽지방 수천리를 노닐어 보았지만

이만한 언덕을 다시 못찾겠더라

### 7 .三 田 渡 (삼전도)

#### 徐 居 正(서거정)

여윈 말 삼전도 길어

가을바람 불어 갓을 기울게 한다.

맑은 강엔 날아가는 기러기 잠기고

떨어지는 해는 돌아오는 까마귀를 보낸다

고목에 누런 새 빛이 맑고

외로운 마을에 모래판이 보인다.

청산이 끝나려 하는 곳에

저 멀리 우리 집이 있구나



8. 東湖舟中 (동호주중 :동호의 배 안에서)

鄭錫慶(정석경)

짧은 노와 가벼운 돛으로 골짜기를 거슬러 올랐는데

푸른 산은 셀 수 없고 물은 서쪽으로 흐르네

석양의 희부연 버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높은 다락에서 두건을 벗고 있네

9. 狎鷗亭(압구정 :강남 豆毛浦(두모포)에 있는 한명회의 정자)

安止(안지)

한승상은 청아한 취미있어 한가함을 즐겨

늘 정자를 향해 오락가락하며 즐기네

어부의 하얀 구렛나루 수영을 짝함이 좋지

기생의 소담스런 머리채를 어여뻐 여기라

갈매기는 섬돌 아래 맑고 맑은 물에 길들었는데

소라는 강가의 산에 점점이 벌려 있네

나라사직의 특수한 공을 어찌 다 말하랴?

마음대로 푸른 물 굽이 내려다 보아도 괜찮으네

## 10. 銅雀渡(동작도 :동작나루를 건너며)

鄭若鏞(정약용)

동작나루에 가을 바람이 소슬한데  
오성을 생각하니 까마득하기만 하여라  
관청집은 우거진 푸른 대숲 속에 있고  
서실은 국화꽃 뜰 앞에 있다네  
멀리 쫓기는 기러기는 석양을 따라 날었고  
이제 서서히 뱃머리는 골짜기로 드는구나  
여행을 가는 행차지만 즐겁지 않으니  
힘써 걸음을 재촉하며 아버지의 연세를 염려하노라

## 11. 麻浦泛船 (마포범선)

月山大君(월산대군)

포구에 가득 봄 풍경이 푸르게 펼쳐지는데  
가는 바람 솔솔 불어 물결위를 스친다  
강가의 작은 풀은 진하게도 푸르고  
언던위의 버들은 황금가지를 드리웠다  
놀잇배의 음악소리 나루터에 퍼지는데

푸르고 푸른 강풀은 물가에 잘도 자란다

어기어차 배 저어 석양녘에 돌아오니

모래판의 갈매기가 뒤를 따라 날아든다

## 12. 垂釣(수조)

### 成 聃 壽(성담수)

낙숫대 강물속에 드리우고서

물에 발을 담그고 낮잠 잤노라

꿈속에 갈매기와 함께 놀다가

깨어보니 어느 덧 석양이었네

## 13. 龍 山(용산)

### 李 穡(이색)

용산은 한강을 반쯤 베개 사마 누웠는데

푸는 솔 산에 가득하고 뽕나무는 마을에 있네

닭 울고 개 짖는 수십호 마을의

낡은 초가집에 저녁연기 떠오르네

용산은 한강을 반쯤 베개 사마 누웠는데

푸는 술 산에 가득하고 뽕나무는 마을에 있네

닭 울고 개 짖는 수심호 마을의

낡은 초가집에 저녁연기 떠오르네

#### 14. 栗 島(율도)

東州 李敏求(동주 이민구)(1623~1649)

세 갈래 물 한쌍 섬을 두른 것이

그 가운데를 白鷺洲(백노주)가 열렸다

작은 섬 물결 따라가지 않고

江中(강중)에 그대로 떠 있구나

주점 한 두채 모래언덕에 있는데

관청 받은 나루터까지 달았다

평성대의 좋은 氣像(기상)

어부들의 피리소리가 마을 노래에 섞인다

#### 15. 漢江途中(한강도중 :한강으로 가는 길에서)

韓 景 琦(한경기)

진흙길은 질퍽질퍽 비는 부실부실

화류가 집에서는 웃음소리 드물다

구름 속의 아침해는 억새떨기 비추고

달머리의 나비들은 떼를 지어 날은다

## 16. 遊 漢 江(유한강)

徐 居 正(서거정)

양화 나루에서 배를 타고 놀이해 보니

인간세상에도 별천지 있는 줄 알겠네

하필 신선과 같이 학을 타고 놀아야 하나

그림을 그리려면 화가 李伯時(이백시)한테 부탁할까

해는 자라등을 밝히니 황금빛 물결치는데

## 17. 舟 下 楊 花 渡(주하양화도 :배로 양화도로 내려오며)

申 用 漑(신용개)

물마을에 가을 깊어 나뭇잎이 날으고

찬 모래에 기러기·백로는 그 털이 깨끗하다

지는 해 갈바람은 놀이배를 자꾸 밀고

취한 뒤에 강산을 배에 가득 싣고 온다

## 18. 舟 橋 行 (주교행)

鄭 若 鏞(정약용)

漢江(한강)물 어찌 그리 넓은지 깊이를 알 수 없다

때로 높은 물결 일어나니 이무기, 용이 숨어 있다네

一天隻(일천척) 많은 배를 비단필처럼 엮어매니

물위에 다리 없다 누가 말로 하오리

大舜(대순) 같으신 聖者(성자)의 마음 해마다 園寢(원침)에 근參(참)하신다.

漢文帝(한문제)는 높은 언덕 달려가고, 원승(익)은 위태로운 곳을 경계했다.

千乘(천승)의 귀하신 몸 외로운 배를 어찌 쓰리

푸른 파도 하늘가에 달고 흐르는 물은 地面(지면)을 가르다.

깃발들 그림자도 휘황한데 바람에 펄럭여 방향이 없구나

까마귀와 까치 되었으면 강물 메워 편안케 하오리

## 19. 東 湖 郎 事 (동호랑사)

白 光 勳(백광훈 - 조선중기시인)

강따라 경치도 좋은데 가는곳 마다 누정이네

누가 있어 오라 가라 나의 노는 일을 막을거나



그 옛날 많은 사람등 천금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

청풍명월이 해마다 낚시배에 가득하다네

## 20. 狎鷗亭(압구정)

세 번 찾아와 부탁하는 임금의 은총 깊으니

정자가 있으나 와서 놀 길이 없다네

가슴 가운데서 공명심만 없어진다고

宦海(환해) 앞에서도 갈매기를 친압할 수 있으리

## 21. 楮子島(저자도)

### 姜碩期(강석기)

잔잔한 호수에 흐르는 물 기름 같이 미끄러운데

좋은 친구들 손에 손잡고 낚시배로 올라간다

늦은 비가 옷을 적시는 데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갈꽃이 환하게 피어 갈매기 나는 물가를 비친다.

石北(석북) 申光洙(신광수)

四月(사월)의 강물 푸르게 넘치니 배 위의 밝은 달이 외롭다.

草家(초가) 八九(팔구)채 넘는 곳에 버드나무 數三(수삼)그루 서 있다.

오늘밤은 여기서 자려고 이웃 배에서 고기를 사온다.

닭 우는소리 들으며 언덕 위로 올라가니 초창한 모습

西湖(서호)가 여기라네

## 22. 過 舟 橋(과주교)

鄭 若 鏞(정약용)

해마다 봄철이 되면 참배하려고

어가는 화성으로 행차하신다.

배다리 놓으려고 가을 지나 배를 모으로

다리는 눈오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네

조약은 묶은 난간에 끼어졌고

어린은 흰 다리 판에 비끼어라

선창에 돌을 실어 움직이지 않으니

천년토록 불변하는 임금의 효성을 알리라.

### 23. 濟川亭翫月 (제천정완월)

李承 瓘(이승소)

달은 가을 강에 비치고 강물은 고요한데  
높다란 백척 정자에 누우니 돌탑과 흡사하네  
달을 벗삼아 말술을 기우이니  
동근 달떡 삼백개를 만들어 어디 쓰라  
맑은 빛 찬 기운은 상하로 통하는 데  
숲처럼 이내 두 귀밑거리 일어나네  
늘 술잔 속에 달 비치기를 바라는데  
어찌 동근 거울과 굽은 갈고리를 알리오

### 24. 楊花渡 (양화도)

成 任(성임)

첩첩한 산과 산은 만고의 정을 품었는데  
봄바람에 나그네는 두 눈이 밝아지네  
마을 앞 수양버들 가지마다 고운데  
섬을 덮은 구름연기는 한 줄 비껴 있네

갈매기는 석양에 날으니 금빛 번쩍거리는데

고기는 잔잔한 물결을 치니 푸른 무늬 생기네

온 세상이 한눈에 들어오니 가슴 시원한데

신선배 타고 하늘에 올라온 듯하네

## 25. 無 題(무제)

金 尙 憲(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 26. 세고탄(洗姑灘) 새색시 노래 - 서거정(徐居正: 1420~1488)

강가 빨래하는 색시 꽃과 같은데  
어려서부터 한평생 빨래하며 지냈지  
아침엔 흰 발을 씻으니 눈빛 같고  
저녁에 흰 팔을 씻으니 서릿발 같구나  
아침마다 저녁마다 씻고 또 씻어  
제 한 몸 깨끗해져 흐뭇한 마음이라네

고치에서 실 내리니 빙사(氷絲) 더 희고  
밤마다 흰 달 아래 찬 북을 밝혔네  
가는 비단을 짜 마름질하여 옷을 만드니  
교초(蛟綃)보다 가늘고 월사(越紗)보다 가볍네

씻고 나니 소박한 화장 물 위에 비치니  
소아(素娥)도 강비(江妃)도 비길 바 없지  
문득 광풍이 불어 천지가 어두워지자  
먼지들이 자욱이 일어나 갈 곳을 잃었네  
허둥지둥 흙탕물 가운데서 넘어져 버리니  
옥 같은 얼굴은 물론 옷까지 죄다 버렸지

시누이 문에 나와 색시를 기다리다  
빨래가 왜 이리 늦었냐고 성화라네  
색시가 돌아오자 시누이 손뼉 치며 웃으며  
더럽고 못나 우리 집 식구 아니라 하네  
시누이 나이 이제 겨우 열세 살  
그때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았었지  
시누이야, 시누이야 색시 보고 웃지 말거라  
이 한(恨)을 다른 날 너도 알게 되리라

※세고탄(洗姑灘): 광나루 하류 쪽에 흐르던 여울이며,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냇가라는 뜻.

## 2) 현대시 속의 한강

### ▪ 목차

1. 한강이 흐른다 (황금찬)
2. 풀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3. 한강 (정공채)
4. 한강 (허영자)
5. 한강은 솟아오른다 (이근배)
6. 한강 1,2,3 (홍윤숙)
7. 한강에서 (권일송)
8. 금물결 은물결 (김요섭)
9. 한강은 바다다 (박정진)
10. 해탈의 강 (박정진)

### 1. 한강이 흐른다.

#### 황금찬

오 민족의 강 한강이여

천년을 흐르고 다시 만년을 흘러도

구비마다 유유하구나



최초의 생명이 솟아나고

바위가 열려 물이 솟고

그리하여 강이 되어 평야를 이루고

도시를 펴고 이어 살아가는

천만 대산이 들이 되고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될 때까지

흘러갈 아. 겨레의 강

빛나는 민족의 강아

구비마다 기적이 일고

역사는 꽃이 피고 다시 지기도 했다

한때는 노들의 복사꽃이 피고

하늘나무 뽕잎이 나라를 풍요롭게

물들이기도 하였지

인심은 순후하여 한 이웃이

가족이기도 하였지

모두 이강 노들의 깊은

강심의 덕이기도 하였지야

이적이 강을 넘어 역사를 침노할 때

언제나 우리의 한강이 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

방패로 살았지

만년의 민족의 역사가

이 강에서 피었으니라

겨레는 강심에 있고

강심은 겨레의 마음에 있었느니

민족의 강이요

겨레의 삶의 터가 강이었다.

유유히 흘러라

민족의 역사도 그렇게 흐르리니

한강이 다시 살아 꽃 피어 날 때

우리도 이 시대의 한강을

다시 살아 흐르게 하라

## 2. 풀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 같이

서리 묻은 선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짱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썩니풀 같은 것들

또 한번 고개숙여 보라함인가

황토언덕

꽃사여

떼과부의 무리들

여기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3. 한 강

#### 정공채

한강수야 흘러라

넘실넘실 흘러라

구비구비 휘돌아 오늘도 흐른다

꿈과 사랑 품안고

잘도 흐른다

님도 나도 품안고 잘도 흐른다

한강수야 흘러라

오늘도 흐른다

이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흐르는데

우리 겨레 어이하여 갈라졌는가 멧힌 한아

이제는 흘러가라

강물따라 하나로 흘러가라

#### 4. 한 강

##### 허영자

세상에는

수많은 강이 있지만

내 나라 육백년은 은성한 도읍의

맑은 하늘을 싣고 흐르는 가은

한강 뿐이리

세상에는

수많은 강이 있지만

북악과 삼각산 푸른 그리매

그 굽힘없는 기상을 담아 흐르는 강은

한강 뿐이리

귀 기울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수런거리는 소리

또 귀 기울이면

먼 내일의 창망한 세월을 노래하는

강물 소리

세상에는

수많은 강이 있지만

진정 사랑하올손 어머니의 젓줄

구비구비 우리 가슴 한가운데를 적시며 흐르는 강은

한강뿐이리

## 5. 한강은 솟아 오른다

## 이근배

아침이 열린다

긴 역사의 숲을 거슬러 올라

어둠을 가르고 강이 태어난다

이 거친 숨소리를 받으며

뛰는 맥박을 짚으며

소리지르며 달려드는 물살 앞에서

설움처럼 감춰온 한강의 이야기를 듣는다

강은 처음 어머니였다

살을 나누어 나라를 낳고

피를 갈라서 겨레를 낳고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바람과 꽃과 새와

나무와 풀과 들과

그리고 말씀과 노래와 곡식과 잠자리와

사랑과 자유와 믿음과...

강은 거듭나는 삶이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날부터

술한 목숨들이 있는 날부터

한편으로 죽어 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강은 끝없는 울음을 삼켰다

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찢기고 피 흘리면서도 강은

다시 일어서서 달리고

더 큰 목숨을 부둥켜안고 왔다.

나라는 나라로 갈리고

형제는 형제끼리 다투면서

칼과 창과 화살의 빗발이 서고

남과 북, 동과 서에서

툼툼이 밀고 들어오는 이빨과 발톱들 ...

강은 홀로 지키고 홀로 싸우며

마침내는 이기고야 말았다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주고

품에 안고 가꾸면서도

강은 늘 버림만을 받아왔다

먹을 것을 주면 썩은 껍질을 보내오고

꽃을 주면 병든 이파리를 던져오는

시달림과 아픔과 쓰라림을 견뎌왔고

끝내는 가시철망에 한 허리가 잘리는

눈 감을 수 없는 슬픔을 만나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강은 다시 태어났다

생채기를 주고 마구 더럽히던

그 아들과 딸들의 손으로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을 살려냈다

그 아들과 딸들의 손으로

맑고 환한 피가 뛰는 숨결을 살려냈다

바다로 몰려 나갔던 물고기 떼가 돌아오고

제 고향으로 날아갔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새들의 동지를 틀고

뗏목이 흘러오던 그 물이랑에

오늘 한가로운 놀잇배가 두둥실 떴다

그렇다 들리느냐

정선 아라리 굽이돌아 가슴에 짓고

한강수 타령 장구춤에 흥겹구나

만선이 뚝뚝 울리며 징징징 울리는

그날의 뱃노래 다시 부르며

한강은 새색시 같은 어머니가 되어

푸른 치마폭 넘실 감싸준다

흘러가라

역사에 얼룩진 뗏자국이여

나라의 어지러운 비바람이여

겨레의 양금진 핏물이여

그리고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만

자유의 이름으로만 평화의 이름으로만

통일을 싣고 오라

깃발 드높이 통일을 싣고오라

## 6. 한 강 1

### 홍윤숙

친구여 보이는가

우리 잠속에 지금도 출렁이는 유년의 강

광나루 독섬 미루나루길

봉은사 가는 한낮의 나룻배

도라지꽃, 보라빛 도라지꽃 무더기로 쏟아지던

마포 앞 강의 저녁 어스름

한 그루 미루나무로 서서 우리들 어린날 기억의 계단에

무성영화처럼 돌아가고 있는

천연색 사진들 사진 속에 찍힌

진보라 빛 유년의 발자국들 보이는가

그 시절 강은 길고 보드라운 잔물결로

내 곤한 잠속에 숨어들어와

어린 날개 연꽃처럼 적시며

칠석날 연등놀이 인도교 밑을 흘러갔다

수만 장 깨어져 반짝이는 유리 조각에

수만 개 불을 띄워

어리론가 끝없이 흘러갔다

우리들 잠속을 흘러갔다

## 한 강 2

### 홍윤숙

이윽고 눈뜨던 성년의 벽

강은 다만 강으로 우리 앞에 돌아와

험벗고 빼앗긴 식민지의 밤을

끊어진 다리 건너갈 길 없는

전란과 파괴의 캄캄한 시간을

피난과 이산 절망의 이야기를

쓸쓸한 모래톱에 모래로 쌓으며

한 시대 암울한 역사를 기록해갔다

다리는 쓰러지고 다리는 소리치며

그 강변에 굶주려 지친 젊은 허기를

가은 청동의 침묵 침묵의 목시로 잠잠히 깨우치며

생의 한가운데로 관통해갔다

정수리마다 파랗게 꽃혀오던 어머니의 은장도

강은 다시 우리의 등을 밀어

어두운 바다 세계의 방으로

밀사처럼 떠나며 꿈꾸게 하던

희망의 푸른 강령이었다.

### 한 강 3

홍윤숙

친구여 오늘 그 강가에서

그처럼 한 시대 어두운 암벽을 기어 오르며

날마다 비에 젖던 생애의 아침들을

지체없이 실어내고 실어오던 그 강가에 서서

물에 어린 그림자도 아름다운

잠시 이 세상 흘러가는 강물따라

흐르는 강물이 되어보는 넉넉함을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도 될까

어느 날 우리 이 강기슭에 아름다운 목숨받아

수난과 시련의 질푸른 미루나무 또는

백양으로 자란 서러운 내력을

이제는 자랑스레 말해도 될까

여한 없이 후세에 전해도 될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흐르는 한강은 죽지 않는다

외쳐도 될까 우리 믿음을

## 7. 한강에서

## 권일송

겨울이면

강물이 퐁퐁 얼어 붙었다

시름겨운 밤을 속으로 굽이치며

숨찬 가슴에 피를 앓았다

시대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골짜기와 산들을 휘돌아

뗏목으로 흐르건 님은

지금은 멀리 가고 없는데

독을 무너뜨린 장마때 마다

통곡을 삼키곤 했다

어느 날 한강은

내게 와서 꽃으로 피어났다

깊숙이 땅을 덮고

봄풀이 우줄우줄 자라는

언덕을 손짓하며

역상의 한 복판을 소용돌이 쳤던

저 천년의 물줄기

지금은 여남은 개가 넘는 다리

애증의 굴절이 심한

개나리 산천을 더수기에 끼고

이 땅의 폰네프의 연인들이

사랑과 인생을 속삭이는 터전에

강심은 푸르고

도심의 네온이 보석을 뿌린 듯 하다

흐르라, 강물이여, 망각의 적막강산이며

크게도 길게도 노래하는 너의 발자국

한숨인 다리 위에도 내일의 꿈은 부풀고

우리들의 가슴엔 이별 없는 손수건의 흐느낌이 있다



## 8. 금물결 은물결

김요섭

해가 저도 한강은 금물결

달이 저도 한강은 은물결

금물결 은물결의 비단으로 흐르는

한강에 행복의 큰배를 띄우고

한강은 영원하다

아름다운 술 한잔 붓는다

( 1987년 한강개발 완공 1주년 기념 축시 중에서 )

## 9. 한강은 바다다

박정진

아침의나라, 처음 하늘이 열릴 때

그 찬란함으로 땅은 기뻐 날뛰었다.

강줄기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 살며

우린 산맥을 따라 바다를 꿈꾸었지.

강굽이를 따라 이골저골 서로 껴안으며

오래오래 숨 쉬었지, 한민족 개벽의 강

한강은 바다다, 우린 바다로 떠나기전

진작부터 바다와 깃발을 꿈꾸었지.

바다가 되기 전 이미 날씬한 몸매를 뽐내고

바다가 되기 전 이미 후덕한 마음씨를 갖추었지.

불을 피우고 가족을 그리워한 먼 먼 그날에

물의 운명을 깨달았지, 한민족 원융의 강

산이 있어 아름다운 강

강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도시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취해 살아온

오천년의 길고 긴 세월의 자락

언젠간 북한강과 남한강처럼 한 데 어우러질

자나 깨나 꿈꾸는 한민족 통일의 강

한때는 피의 강, 혁명의 강, 기적의 강

이제 용트림하는 강, 한강의 르네상스여!

자전거, 수상콜택시로 출근하는 서울내기들

새소리, 꽃향기, 녹색의 길, 밤의 나룻배

다시 웅비와 기적을 위하여 나팔을 분다.

푸른 강물에 비치는 조선의 기상이어!

## 10. 해탈의 강

박정진

올림픽대로는 꿈의 길

때로는 강에서 바다로 달리고

때로는 바다에서 강으로 달리는

너와 내가 스쳐가는 천로역정의 길

장대 같은 비는 해탈한 듯 내린다.